

예 배 WORSHIP

December 2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하나님 앞으로
 - 시역과 행사 안내
 -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 예배기도 / 장영현 전도사
 - 주님 가르치신 기도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 요한1서 2:28-29
 -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 결단의 찬송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통일찬송 115장)
- 헌신과 나눔
 - 봉 헌 / 최선운 집사, 박진성 집사
 -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삶과 세상으로
 - * 찬송가 301장 / 지금까지 지내온 것
 - (통일찬송 460장)
 -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등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구 민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민수기 3:14-46
레위 지파의 역할

오늘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바라 보는 곳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일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주님도 그렇게 여기실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을 때가 허다하다. 찬양 속에서
영혼 깊은 곳을 열어 보자.

돌아보니 우리는 늘 부와 건강과 명예를 잃는 것을 두려워 해 온 듯하다.
특히, 나이를 먹어가며 인생이 의미 없이 끝나 버릴까도 두렵고 내 삶 속의
여러 관계가 깨질까 두렵기도 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 잡고
우리는 편협한 마음과 욕심의 종이 되었다.

"주 앞에 모든 것 내려 놓고" 라고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2020년 한 해 열심히
살았을 당신에게 물어보고 묵상하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 목표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인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조급함 대신,
실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간구하는 송구영신의 결단을 하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헛되이 잡을 것을 내려 놓을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 지고 '참된 평안'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삶의 근거가 됨을
믿으며 찬양하자.

한 주간의 기도

"내 계획이 목적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론 고난도 주셔서 내 성공이 교만으로
다다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넓혀 주셔서 내 생각, 내 감정에만 빠지지 않고 함께 전진하는 동역자와
섬겨야 할 이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며, 나의 발걸음 마다 함께 하시며 크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음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찬양 16가 9장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놓고
주님만 사랑해"

삶과 신앙

몇 년 전 송구영신예배 때 있었던 일이다.

그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어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로 마음고생하며 수고한 세 가정을 선정하여 송구영신예배 때 앞으로 모시고 기도와 격려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기로 했다.

그때 초청하여 앞으로 모신 가정 중에 젊은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에게는 아직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가슴 아프게도 그 어린 아기에게서 신경모세포종이란 일종의 암이 발견되어 항암 투병 중이었다. 어린 아들의 투병 과정을 돌보면서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는가? 그날 젊은 부부는 참 많이도 울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여 연락을 했다. 그러자 아이 엄마에게서 장문의 메일이 왔다. 아이가 생후 50일 되던 무렵 원인 모를 고열로 소아과에 들른 것으로 시작하여 눈물 나는 투병 생활이 담겨 있었다. 어린 아기에게 주사바늘을 꽂는 것만 봐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지난 아픔이 그 메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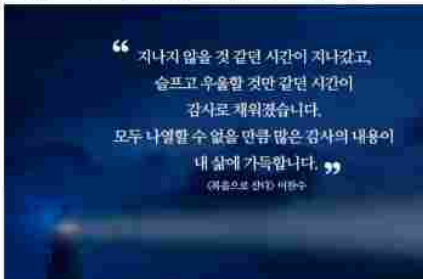
그 글 중에 내 마음이 울컥하고 눈시울이 붉어진 대목이 있었는데, 아팠던 시간을 담담하게 피력하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아이 엄마는 이런 고백을 했다. "지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지나갔고, 슬프고 우울할 것만 같던 시간이 감사로 채워졌습니다. 모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사의 내용이 내 삶에 가득합니다."

투병 생활 중에 엄마가 누릴 수 있었던 감사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삶의 고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부부관계 때문에, 자녀의 일탈 때문에, 병을 만난 것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고통 중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할 때, 그 과정을 되돌아보니 아픔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감사로 채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 않은가? 우리가 아프리카로 달려가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무겁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몸부림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택정함의 비밀을 알려주셨기에 나는 반드시 이 고비를 이겨내야 한다'라며 이를 악물고 건디는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택정해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집중력 있는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이찬수 목사 『복음으로 산다』 중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민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2월은 “나의 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송년감사주일 한 해 동안의 헌신과 섬김에 감사합니다.
2. 금주는 결산주간이며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기억합니다.
3. 송구영신예배(31일/화) 송년찬교 7:00 pm / 민송축이 & 송년 Oikos 8:00 pm / 송구영신예배 및 성찬예식 11:30pm
4. 12월은 결산과 예산의 기간입니다. 영적성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5.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열매를 맺도록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섬김의 교회의 다섯째 해에도 사역의 열매가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7.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8. 연말 연시에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다.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금요 찬양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12월 사역 ▶ 12.22 성탄감사 주일 / 12.24 성탄축하의 밤 / 12.31 송구영신예배, 성찬예식 & Oikos 셀모임
▶ 예결산 사역 / 사역 리뷰와 제정비

♥평일 예배♥ 오준하(12/2) 김훈태(12/19) 박다현(12/23) 홍은성(12/26) 유덕하(12/28) 최선윤(12/30)

예배와 영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건강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2/22	12/29	1/5	1/12
	구 민집사	장영현전도사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금요일예배기도	12/27	1/3	1/10	1/17
	오정은집사	구 민집사	최선윤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12/22	12/29	1/5	1/12
	박진성집사/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12월		1월	
	김훈태집사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이유들 / 요한복음 1:9-14

성탄감사 주일예배를 드리며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충만하게 되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처럼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없는 잔치'를 기뻐합니다. 분명 영원하지 않고 조건적이며 일시적입니다. 우리들은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기뻐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 즉,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려야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 요한1서 2:28-29

2019년 한해를 마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상황을 확신합니다.

첫째, 예수의 재림을 확신하며

둘째, 미혹이나 유혹을 이기며

셋째, 예수님 안에서

넷째,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 요한1서 2:28-29

송년감사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좀 더 잘 기다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려야 한다. 확신도 없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셈이다. 성경에 재림에 관한 말씀은 초림에 관한 말씀보다 세 배 이상 더 많이 기록되었으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면 안된다. 다시 올 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둘째,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은 "예수께서 오시려면 아직 멀었으니깐 굳이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전에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 해도 기다린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전혀 없다. 우리 삶을 마치는 날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 위한 우리의 준비와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다. 평생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산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준비된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셋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또한,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 세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담대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최고의 준비가 된다.

넷째,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복음 전파 과제를 주고 가셨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을 텐데..." 하면서 숙제를 자꾸만 미루면 안 된다. 또한 예수님의 사람답게 의를 행해야 한다. 의를 행해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의를 본받아 행해야 한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 하게 되고 예수님께 칭찬 들을 인생을 살게 된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한다. 당장 예수께서 오신다면? 그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 재림을 기다리며 더 성숙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내가 영광이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영광이 될 때를 위하여 내가 섬기게 된다.”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December 29,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2019년 12월 29일

5-52호

나눔의 달
송년감사주일
선교주간 / 결산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